한국무용과학회지, 2024, 제41권 제1호, pp.79~92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24, Vol.41, No.1 pp.79~92
1229-7836/24/645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24.41.1.79

중견무용수들의 한국전통춤 무대 경험 내러티브 연구†

고효영* 동덕여자대학교·유영수** 전주대사습청

초록 본 연구는 한국전통춤을 토대로 다양한 무용콘텐츠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 및 발전시키고 있는 중견무용수를 바탕으로 이들의 한국전통춤에 대한 가치확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기준을 바탕으로 중견무용수 5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으로부터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대라는 곳은 중견무용수 시점에서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전통춤에 각자가 지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 작품을 풀어내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중견무용수들은 무대 위 '현장인'으로서 다채로운 무대를 고사(考査)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중견무용수에게 있어 한국전통춤의 공연수행은 행보(行步)를 거듭하여 다양한 수용을 통해 진화(進化)하는 무대로 만들어 가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중견무용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시대와 나란히 마주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진화하는 무대를 만들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통춤이라는 주체를 통해 시대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으로부터 한국전통춤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되고, 이에 있어 중견무용수들의 한국전통춤 가치확장성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판단되다. 앞으로 중견무용수에 관한 경험 중심 연구 사례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연구 대상 범위의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주요어 : 중견무용수, 한국전통춤, 내러티브 연구, 가치확장성, 무용콘텐츠

Ⅰ. 서론

제44회 서울무용제가 지난 10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서막을 알렸다. 이는 무용분야의 세 장르를 포괄하여 심지 굳은 전통성과 무용인들의 상호교류 및 상생을 이끌어 오면서 수많은 무용인들에게 관심을 받아온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축제가 되기 위해 '두개의 세상, 하나의 춤'이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여러 무용콘텐츠 개발과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왔고, 무용 장르, 계파, 연령에 국한되지 않으며, 신인 무용가부터, 중견에서 원로무용가까지 함께 참여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무용축제로서 예술가의 삶을 공경, 기대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이규승, 2023.11.12.). 이로 하여금 서울무용제라는 축제를 통해 장르를 불문하고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무용가들의 개성 및 가치관을 작품에 녹아내어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로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또한 국립무용단에서는 '홀춤Ⅱ'를 통하여 국립무용단의 중견무용수 6인이 두 번째 시리즈로 2021년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공연을 선보인 적이 있다. 국립무용단 중견 무용수 6인은 각자가 지닌 춤사위로 전통춤을 독무(獨舞)형식으로 재해석해 무대를 펼쳤다(정석현, 2021.11.17.). 이에 국립무용단 손인영 예술 감독은 "오랜 수련으로 전통을 체화한 춤꾼들이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이 재해석한 전통을 직접 구현하고, 스스로 새로운 전통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 이 논문은 2022년 고효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제1저자, 동덕여자대학교 무용융합콘텐츠학 박사, hyobaby-55@hanmail.net
** 교신저자, 전주대사습청 관장, puri97@hanmail.net.

“미래 명인으로 거듭날 6인의 새로운 전통춤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정석현, 2021.11.17.). 이처럼 협회 및 단체들이 소외된 무용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축제 및 공연들을 선보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로써 무용가들은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르며 공연을 수행하면서 춤 길의 인생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재 춤에 대한 창조적 계승을 위해(황희정, 2014) 중견무용수를 발굴하고, 정성스러운 예인의 마음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동시대적인 춤을 구현하고자 중견무용수들은 현재에도 국공립단체를 통한 공연활동, 문화재 이수자 지원사업을 통한 공연활동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시대는 신진무용가와 더불어 무용을 하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무용과 폐지가 되는 것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혁(2016)의 연구에 의하면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 지방 예술학과들은 구조개혁 대상으로 최우선순위에 놓여 통폐합 위기에 처해있으며, 예술대학의 위기적 실태를 통해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예술대학 위기의 외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예술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대학평가 기준인 취업률에 있어 예술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 반영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과 더불어 긴 세월을 견고하게 버텨내어 준 중견무용수들의 한국전통춤 무대 경험의 내러티브 연구를 토대로 무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시하는 내러티브 연구(염지숙, 2007; Clandinin & Connelly, 2000)는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범위를 한정지을 수 없어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에 무대 공연과 공연경험에 관련된 선행연구(이진이, 2016; 임선영, 이연수, 2013; 이도경, 2012; 노정식, 2009; 조정희, 2005)들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이 밖에 무용전공자와 관련된 경험연구(김예진, 윤혜선, 2021; 김민주, 노정식, 2019), 한국전통춤 전승과 보존에 대한 연구(황희정, 2014; 윤덕경, 2010), 내러티브 관련연구(손원미, 전순희, 2021; 김민주, 노정식, 2019; 김한범, 2017, 김미숙, 2015)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무용수에 관한 선행연구(이윤경, 2023; 송시윤, 2019; 최은혜, 2018; 전미애, 2017; 김다희, 2015)를 살펴보면 직업무용수와 전문무용수 중심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중견무용수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및 이와 관련된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아직 맥락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중견무용수란 만 39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무용수로 중심적 역할의 고양(高陽) 및 한국전통춤의 발전과 활성화를 추구하는 무용수를 뜻한다.

이에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내러티브에 대한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중견무용수들의 한국전통춤 무대 경험과정과 더불어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통춤에 대한 가치확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전통춤에 기반하여 다양한 무용콘텐츠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 및 발전시키고 있는 중견무용수를 바탕으로 한국전통춤에 대한 가치확장성을 알아보고, 이들의 한국전통춤 무대 경험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경험에 바탕을 둔 논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판단되며, 앞으로 성장하는 한국전통춤 신진무용가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 가운데 내러티브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5명을 선정하여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전통춤을 바탕으로 가치에 대한 확장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판단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견무용수에 관한 경험 중심의 연구 사례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또한 이와 더불어 연구 대상 범위의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명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중견무용수를 만 39세 이상, 만 60세로 기준을 두었다. 이에 서울에 거주하고, 무용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며, 무대 경험 경력이 20년 이상 및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견 무용수 5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대학 강사 및 무용단 운영, 연구 참여자 B는 서울시 무용단 소속, 연구 참여자 C는 예고와 대학에서 강사 역할 및 무용단 운영, 연구 참여자 D는 프리랜서 및 보존회 운영, 연구 참여자 E는 대학 강사 및 무용단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순서대로 한국전통춤인 살풀이춤, 한량무 및 승무, 교방굿거리춤, 살풀이춤 및 승무로 무대 경험 경력이 모두 20년 이상이며, 자신의 위치에서 한국전통춤 역량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다음과 같다.

표 1. 개인적 특성

구분	무용 경력	한국전통춤 경력	연령	성별
A	34년	25년	48세	여
B	39년	30년	54세	남
C	47년	27년	54세	여
D	40년	35년	53세	여
E	50년	22년	55세	여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내러티브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면담과 대화를 필요로 하므로 심층면담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내러티브 연구에서 현장 텍스트 과정에 포함된다. 연구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담에 주의 깊게 임해야 하고, 내러티브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도구이다(염지숙, 1999).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현장 텍스트 수집 과정으로 질적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심층면담을 사용하였고, 이 밖에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각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총 2~3회 걸쳐 자유로운 대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22년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3차적으로 후속 면담이 이어졌다. 이에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주로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연습실, 연구실, 주변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부족한 부분들은 연구 참여자와의 전화통화와 이메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 있어 면담의 녹취록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진행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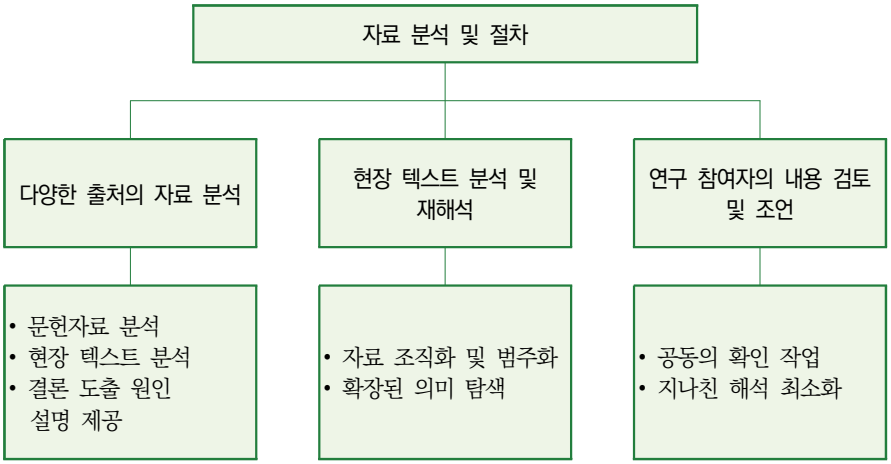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나눈 현장에서 작성한 노트와 더불어, 연구 일지, 문자, 이메일, 녹취록이 포함되었고, 면담 과정에서 녹취록은 무조건적인 기록에 관한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며, 이로부터 얻은 녹취록은 연구자가 바로 연구일지에 전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함이며, 이에 주목적은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총체적 및 심층적으로 얻고자 함이다(김민주, 노정식, 2019).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문헌자료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루어진 심층면담, 녹취록, 연구일지 등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내용 검토, 조언, 그리고 반응 공동체(response communit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면담으로부터 취득한 다양한 자료들은 연구자가 직접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면담자료를 조직화 하여 범주화 시키는 단계를 거쳤다. 이는 연구의 결론 도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험에 관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형성하였으며, 그 안에 내

포된 의미를 탐색하고자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스터디 모임을 통해 여러 연구자들과 자료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으로부터 연구자의 주관성에 치우침을 방지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한 내러티브를 연구 참여자와 함께 공유하며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연구 결론의 판단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효영, 2022).

표 2. 자료 분석 및 절차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시하는 내러티브 연구의 5단계 연구 절차 모델(염지숙, 2007; Clandinin & Connelly, 2000)을 활용하였다. 이는 현장에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기,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로 이루어진다.

우선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작성하여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와 적합한 연구 참여자 5인을 선정하였고, 유연한 관계가 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형성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두 번째 단계인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이동하기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총 2~3회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거리두기 방법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에 대한 전사본을 작성하고, 녹취록 및 현장 노트를 정리하였으며, 이후 연구일지를 기록하였다. 네 번째 단계인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기 단계에서는 현장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 이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위해 서로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현장 텍스트 자료 분석을 통해 공통된 측면과 더불어 확장된 의미를 탐색하고, 연구자의 해석으로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여 최종 연구 논문을 구성하고 작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Ⅲ. 중견무용수의 한국전통춤 가치확장성 탐색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분석의 틀로 3차원적 공간인 시간성, 장소, 사회성이 활용되며, 이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클랜디닌(Clandinin)과 코넬리(Connelly)가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중점적으로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집중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경험의 연속성은 시간성을 의미하고, 연구 참여자가 일어나는 상황은 장소에 해당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사회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두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지닌 경험의 연속성과 순환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해석하여 그 안의 확장된 의미를 탐색하였다.

1.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자유로운 공간

1) 춤의 멋과 맛을 전달하고자 책임감을 갖는 연구 참여자 'A'

청년 시절 무용단 퇴사를 결정하고, 전통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서울로 상경한 연구 참여자 'A'는 살풀이춤으로 첫 공연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작품을 스승에게 사사(師事)하며 다양한 전통춤을 바탕으로 무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솔리스트로도 활동하며 이제까지 경험한 무대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작품을 표현하는 무용수의 표현방식, 무용수 각자가 지닌 색깔, 무용수의 컨디션 등 각자가 지닌 방식이 다르므로 독무 형태의 공연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무대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편안한 상태로 춤을 즐기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각 춤이 지닌 멋과 맛을 자유로움이 공존한 상태에서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며 강한 책임감을 보여 주었다.

> 춤에 따라 그 춤이 지닌 느낌을 표현하면서 관객들하고 조금은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관객과 호흡도 나누고, 관객들에게 최대한 무언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대에서 춤을 췄을 때 순서에 연연하지 않고, 그 날의 저의 느낌, 그러니까 저의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서 관객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1차면담, 2021.12.06.)

> 춤의 멋이나 맛을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무용수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요. 순서에 의해 그냥 누구나 다 추는 그런 춤을 보여줘서 관객들이 느꼈을 때 다 똑같은 춤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춤추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색깔이 다르니까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죠. 지금 중견의 나이로 무대에 오를 때는 예전과 비교해서 조금 성숙되고, 연륜이 묻어나온다고 할까요. (3차면담, 2022.01.10.)

2) 전통작품에 드라마를 입혀 춤을 추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에게 있어 한량무는 가장 많이 공연한 작품이다. 한량무는 연구 참여자 'B'가 가장 좋아하는 춤이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과 맞으며 무대에서 자신이 흘러가는대로 자유롭게 추는 춤이라고 했다. 이전에는 승무에 매료되어 긴 시간의 연습시간을 거쳐 깊이 있는 춤을 추기 위해 학습해 왔고, 이 춤으로 무대에 오를 때면 자신이 추었던 어떠한 전통춤보다 학습했던 기간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느낌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승무라는 춤이 대중적인 면에서 인기가 없는 것을 느낀 후 대중성을 고려하여 공연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 참여자 'B' 자신의 스타일, 표현의 자유, 대중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고심 끝에 '춘설지몽'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사풍정감'에서 얻은 모티브로 드라마를 입혀 연구 참여자 'B'만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 승무가 무형 유산으로서 가치가 돋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그렇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이것 또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죠. (2차면담, 2021.12.18.)

> 한편으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춤을 보면서 멋있다고 느끼고, 춤을 배워보고 싶었던 C선생님의 춤적인 요소

들도 접목시켰어요. (중략) C선생님의 '연가'라는 작품을 받기도 했었는데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경험을 토대로 좋은 요소들을 접목시켜 드라마를 설정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 '춘설지몽'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한량무, 즉 선비춤이라고 하는 춤을 가장 많이 무대에서 추었죠. (2차면담, 2021.12.18.)

3) 자신의 스토리로 작품을 풀어나가는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전통춤에 대한 열망이 높아 정식적으로 20대 후반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높은 열망과는 달리 직접 전통춤을 경험해보니 답답함을 느꼈고, 처음으로 배운 교방굿거리춤의 개인공연은 아직도 무대에서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다고 했다. 그러나 타고난 성실함 끝에 현재까지 중견무용수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을 해오면서 현재에는 교방굿거리춤을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고 했다. 즉 자신만이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전통작품에 입혀 작품으로부터 그 스토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C'는 작년에 공연한 교방굿거리춤에서 자신만이 풀어낼 수 있는 굿거리춤이라는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작품을 통해 스토리를 입혀나가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전통춤이 지닌 각 특징에 자신이 지닌 스토리를 담아 자신과 가장 근접한 정서를 개입시켜 무대라는 공간 위에서 관객들에게 춤으로 감동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작년 교방굿거리춤으로 무대에서 춤을 춘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저만의 스토리를 입혀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번 개인 공연을 할 때 교방굿거리춤을 어떻게 표현해서 춤을 춰야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TV를 보다가 엄마의 사진은 왜 꽃밭일까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죠. 거기에서 사진을 보니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은 다 꽃이 그려져 있고 해맑게 웃고 있는데 인상 깊었어요. '엄마는 왜 항상 꽃밭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춤을 추려고 해요. (2차면담, 2021.12.18.)

춤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양해요. 무대에서 가장 진솔하게 춤을 추기 위해 자기 자신과 근접한 정서를 개입해서 춤을 추는 거죠. (2차면담, 2021.12.18.)

4) 입춤을 통해 자유로움을 얻는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승무 및 살풀이춤을 이수했고,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전통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지속적으로 한국전통춤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다양한 전통춤을 무대에 올리면서 연구 참여자가 무대에서 가장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는 춤은 맨손으로 추는 입춤이라 전했는데 이는 소품에 대한 제약이 없고, 어떠한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아 즉흥적인 춤사위로 춤을 구사할 수 있어 자신이 만들어가는 춤이라고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출 수 있는 입춤, 허튼춤이라고 그러죠. 이 춤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형식의 틀에 매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각도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입춤, 소위 말하는 허튼춤이라는 춤이거든요. 그냥 무대에서 맨손으로 추는 입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중략)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살풀이춤이나 승무는 저를 제한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수건이 저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장삼 자락이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2차면담, 2021.12.20.)

제가 입춤을 출 때 라이브로 악사들하고 넘어가는 부분에는 약속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제가 춤을 추는 길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춤을 무대에서 출 때 기본적인 약속을 제외하고는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좋죠. (1차면담, 2021.12.08.)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5) 몰입의 과정과 질감의 차이를 맛보는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청년무용수 때 공연을 할 때와는 달리 공연을 함에 있어 순서에 연연하지 않고, 각 춤이 지닌 특성을 표현하며 몰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공연을 경험하면서 무대에 오르는 순간, 즉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순서에 집중을 빼앗기면 춤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고 있고, 계획된 상태가 아닌 물이 흘러가듯 몸 또한 흘러가게 되면 무대 위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춤으로 인해 춤에 대한 질감을 표현해주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라는 자유로운 공간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찾는 것이라 했다.

> 무대에서는 순서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그 순서는 하나의 모형일 뿐인 거죠. 이 모형을 내가 다시 받는 것이에요. 내가 빈 깡통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에 대한 질감을 나의 숨 쉬는 방법으로 바꿔서 질감을 표현해주면 그 어떤 틀 안에 있지만 자유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무대에서의 춤을 보고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서 그냥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태가 그게 어쩌면 질감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차면담, 2021.12.05.)

> 계획을 세워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작품의 순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쩌면 그 순간에 그냥 잘하고 못함이 아닌 합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춤을 추는 거죠. 그날의 춤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무대에서 몰입할 때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2차면담, 2021.12.16.)

2. 스스로 발전하는 무대를 만드는 현장인

1) 무대에서 무대로 돌아오는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는 무대에 있어 새로운 시작이 50대를 기점으로 보고 있으나 60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전통춤을 춤에 있어 애매한 시기라 여기고 있었다. 이제까지 무대를 통해 전통춤을 추어 오면서 춤에 대한 열정, 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중견의 나이로 춤을 추며 무게감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 참여자 'A'는 춤을 추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무대와 춤에 대한 본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무대로부터 시작된 고민들이 생길 때면 시간이 지나 무대에서 고민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에 무대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춤 공부를 하며 공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미래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원로무용수들의 보완할 점들을 검토해 나가며 중견무용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덧붙여 연구 참여자 'A'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오르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신의 위치에서 현재에도 맡은바 역할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다.

> 무대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일이 천직이라 생각해서 그만둔다는 생각은 크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올 때 잠시 '왜 무대에 서고 있지?' 라는 생각은 할 때가 있었어요. (1차면담, 2021.12.06.)

> 무대를 계속 서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30대에서 40대로 접어들 때 그랬죠. 젊었을 때의 열정도 그렇고,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어떠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중략) 그 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40대 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근데 결국엔 다시 무대에 서면서 다시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시작했던 문제가 무대에서 다시 풀렸어요. (2차면담, 2021.12.21.)

2) 무대 위 플레이어로 남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는 무대에 오르는 자신을 통해 발전된 무대로서 한 층 성장하고자 몇 가지 노력을 한다고 했다. 최소 공연 2시간 전에는 가급적 말을 하지 않고, 무대에서의 몰입을 위해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다. 이는 작품에 따른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무대에 연구 참여자 'B'가 오르는 것에서부터 플레이어로서 엄청난 몰입을 하며, 감정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 긴장감을 유지한다고 했다. 무대라는 현장에서 성공적인 무대를 보이기 위해 중견남성무용가로서 초심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있고, 공연 당일의 컨디션, 악사들의 성격, 관객구성과 반응 등 세심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무대 위 플레이어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다.

> 제가 이제까지 무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무대에서는 춤을 그냥 추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 표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춤을 추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 진도북춤이나 타악을 가지고 할 때, 살풀이춤, 산조 등 그 작품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감정들이 달라져요. (2차면담, 2021.12.18.)

> 무대에 딱 오르는 순간에는 플레이어로서, 춤꾼으로서 캐릭터에 최대한 몰입하려고 해요. 그 작품이 지닌 텍스트를 계속 머리로 곱씹으면서 상기시켜요. 그러다 보면 춤의 순서라는 것은 사실은 있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2차면담, 2021.12.18.)

3) 즐거움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는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교방굿거리춤으로 전통춤에 처음 입문하였고, 시간이 지나 서른 후반에 설장구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많은 연습량으로 몸은 지쳤으나 춤을 추면서 해방감을 얻었다고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C'가 지닌 발산적인 성향이 설장구와 맞아 떨어져 중견의 나이에서 이 춤으로 공연을 할 때면 대부분 즐거운 공연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또한 설장구를 스승의 권유로 공연에 올리게 되면서 다양한 경험이 쌓여갔고, 춤을 추는 자신이 즐겁기에 관객 또한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높아져갔으며, 무엇보다 작품으로 인해 얻는 자유와 해방감을 관객과 느끼고자 함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살풀이춤이나 교방굿거리춤, 그리고 태평무는 뭐만 하면 절제하라 하고, 삼키라 하고, 조금 기분을 내면 너무 들어내면 안 된다 등등.. 그랬는데 장구를 치면 그 진동이 내 몸을 이렇게 울리게 하니까 그게 너무 신났던 거죠. (중략) 제가 성격이 직설적이고, 발산적인 사람인지라 자꾸 삼키고 춤을 추다가 장구를 하니까 뭔가 해방감이 느껴졌고, 그냥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나고 재밌기도 하구요. (2차면담, 2021.12.18.)

> 설장구는 저에게 있어 너무 자유로웠어요. 저한테 주어진 상황이 선생님께서 설장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규정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설장구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도 없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1차면담, 2021.12.11.)

4) 준비된 무용수로 실전에 임하는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무대는 곧 실전이라는 생각을 항상 되새기며 공연에 임하고 있었다. 무대에 오를 경우 공연에 대한 만족감, 돌아오는 피드백 등 자신이 무대를 통해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준비성이 철저해야 다음의 무대 또한 성공적인 무대로 한 발자국 다가선다고 했다. 또한 무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외부적 상황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했으며, 이는 무대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대에 오르는 춤꾼으로서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요인이라고 했다.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에 선다는 것은 중요하죠. 크든 작든 무대 경험은 소중해요. 엄청 소중해요. (1차면담, 2021.12.08.)

무대는 실전이에요.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내려왔는데 제가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추임새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둘이 딱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도 오늘 괜찮았거든. 너도 보기 괜찮았니?' 이렇게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이전에 준비를 탄탄히 하는 것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2차면담, 2021.12.20.)

5) 자신의 개성이 담긴 춤을 표현하는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현재까지 공연을 해오면서 자신의 개성이 담긴 춤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표현하려면 각자가 지닌 질감을 표현해 내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춤에 대해 비우는 몸짓이 필요하고, 그 비움의 몸짓에서 다시 채워져 자신의 춤이 표현되는 것이라 강조하며 현재에도 자신의 춤을 비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력의 차이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자신의 춤이 지닌 고유의 색깔을 관객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항상 무대에 임할 때 진심을 담아 무대에 오른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질감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 자기의 개성이 담긴 질감이 다르려면 비움의 상태가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 다시 채우는 거죠. 서로 질감이 다른 것 자체 또한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구요. (1차면담, 2021.12.05.)

진심이 통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셋이 함께 하는 공연인데, 우리가 셋이 각자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 색깔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무대였어요. (중략)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그냥 젖어 있었나 봐요. 아직까지 잊을 수 없고,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요. (1차면담, 2021.12.05.)

3. 행보(行步):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길

1) 무대 위 행복과 믿음을 주는 무용수로 노력하는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에게 있어 무대에서 가장 행복감을 얻는 춤은 살풀이춤으로 한국전통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더욱 매료되었었다. 그 이유는 자신과 성향이 맞고, 한국전통춤의 특징적인 호흡과 더불어 춤을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공연을 경험할수록 춤의 깊이와 매력에 매료되어 이 춤에 대한 애정이 다른 춤 보다 더욱 컸었다. 그리고 승무, 입춤, 장구춤, 소고춤 등 많은 작품으로 무대에 오를 때 또한 행복감을 얻는다고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중견의 나이로 무대에 오르면서 책임감의 무게를 경험하고, 미래에도 꾸준히 춤을 추기 위해 묵직한 춤으로 더욱 거듭나고 싶다고 했으며, 이에 자신이 지닌 느낌, 호흡, 스타일 등으로 춤을 가꿔나감과 동시에 끝없는 노력의 길이라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장구춤, 소고춤 악기를 들고 추는 춤, 입춤 등 많이 추어 왔는데 다 재미있고 좋아요. 근데 살풀이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악은 타악 나름대로 재밌고, 살풀이춤은 문화재 춤이고, 우리가 이 춤을 이어가야 되니까 조금 묵직하고 무거운 춤을 추고 싶어요. (2차면담, 2021.12.21.)

이제 앞으로 다가올 50의 나이를 기점으로 무대에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봐요. 30대에 많은 무대를 섰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무대를 서야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무용수로 남고 싶은 큰 욕심은 없어요. 무대를 앞으로 서야할 일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선생님의 제자로서 누가 되지 않게 제가 일단 무대에서 만큼은 그냥 춤 잘 추는 무용수, 또는 믿고 볼 수 있는 무용수이고 싶고, 이러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달려야죠. 의심을 주지 않는, 믿음을 주는 무용수로 남고 싶어요. (3차면담, 2022.01.10.)

2) 다채로움을 고사하여 진화하는 무대를 만들고자하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는 전통춤을 추는 것에 있어 즉흥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형화 및 경직되어 있는 춤이 아닌 라이브 음악에 맞춰 즉흥성을 포함해 자유롭게 춤을 구사하는 순간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이러한 요소들에 입각하여 연구 참여자 'B'는 진화하는 무대를 항상 생각하고 있고, 시대에 맞게 한국전통춤을 재해석하는 고민과 더불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장단의 변화, 다양한 춤사위 등 다양한 점들을 고사하며 대중친화적인 접근의 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있어 정형화되고, 경직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앞으로도 이 작품에서 형편이 된다면 장단 변화에 따라 엇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중모리에 대금 선율도 넣는 것 등 다양한 전통음악을 추가해서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사위에 어떤 다양함, 다채로움을 고사(考査)하고 싶어요. (2차면담, 2021.12.18.)

전통춤으로서의 행보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관람하는 입장에서 이 춤은 어떤 느낌에서 춤이 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대중 친화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거죠. (2차면담, 2021.12.18.)

3) 재미있는 전통공연을 선사하고자하는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다양한 공연을 하면서 재미있는 장구춤을 만들고자 재구성하는 작업에 힘을 쓰고 있다. 이전에는 장구와 랩을 활용해 공연을 올린 경험도 있고, 정읍설장구를 모태로 춘향이와 이도령, 그리고 향단이 3인의 삼각관계를 스토리텔링하여 공연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장구춤 단일 장르에 여러 전통춤을 합하여 컨템포러리식으로 공연을 올린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이를 통해 뮤지컬과 같이 대중화에 힘쓰기 위해 설장구라는 단일 작품을 재해석하여 무용수와 관객이 함께 재미있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개인공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구를 치면서 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단체명을 가지고 군무로 공연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3인무를 재구성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냥 대단한 예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보고 있는 관객이 그냥 피식 한번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거나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1차면담, 2021.12.11.)

그런데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것은 재미가 없었던 거죠. 뮤지컬 공연은 20만원, 30만원에도 보러 다니는데 전통춤이나 우리 무용은 누가 와서 보지 않아요. 전공을 하고 있는 저 조차도 졸린데.. (중략) 계속 무대는 서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괴감을 느끼면서 공연하는 것 보다 서로가 재미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2차면담, 2021.12.18.)

4) 예술적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공연 수행에서 불가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무대 위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항상 함께 공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존한다고 하였고, 이는 소통과 연결이 되며, 누군가와의 소통은 앞으로 자신이 무대에서의 예술적 발전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통이라는 것은 무용수가 노력해야하는 부분인 것을 인지하며 무대에 대한 무궁무진한 길을 갈고 닦으려면 무대 위 소통과 더불어 앞으로의 무대 경험이 많아야 자신이 원하는 전통춤에 대한 발전상에 다가간다고 덧붙였다.

> 제가 생각했을 때 무대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무대에서 나의 예술이 발전되어진다 생각해요. 발전하는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은 끝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배들도 앞으로 춤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차면담, 2021.12.08.)

> 무대 경험으로부터 오늘이 아닌 내일에 대한 저의 예술적 발전과 더불어서 전통춤에 어떤 발전상을 추구한다면 무대 경험은 많이 필요해요. 이 무대가 어떤 무대든 나를 제외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면 무대 인거죠. (2차면담, 2021.12.20.)

5) 다양한 수용을 통해 발전하는 무대를 만들고자하는 연구 참여자 'E'

무대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 'E'는 무대의 공간,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보고 있었다. 현재 문화재춤에 대한 전통은 고수하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보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무대에서 자신의 공간이 열리고, 각 상황의 조율과 다양한 수용으로부터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 교감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과거와는 다른 발전적인 무대를 완성시킨다고 덧붙였다.

> 전통춤은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을 여는 거거든요. 나의 공간이 열려야 외부적인 공간이 열리고, 이 공간을 열어줘야지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 순환할 수 있어요. (1차면담, 2021.12.05.)

> 전통춤에 대해 열심히 연마만 하면 어떤 문이 하나 닫혀 있기 때문에 나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공간을 통해서 열어야 자신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막혀있지 않고 다양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1차면담, 2021.12.05.)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전통춤에 기반하여 다양한 무용콘텐츠 개발을 끊임없이 혁신 및 발전시키고 있는 중견무용수를 바탕으로 이들의 한국전통춤에 대한 가치확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채택(採擇)하였고, 중견무용수 5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내러티브로부터 한국전통춤 가치확장성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전통춤을 통한 무대 수행 과정으로부터 달라진 과거와 현재의 변화는 무엇인지, 변화를 통해 깨닫는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공연을 위해 한국전통춤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노력, 다양한 수용으로 대중에게 다가기 위한 노력 등, 심층면담을 통해 각자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견무용수들이 이제까지 무대 경험을 통한 과정과 한국전통춤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노력 및 콘텐츠의 개발 등, 이들의 노력으로 수반되고 있는 한국전통춤의 가치확장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대라는 곳은 중견무용수 시점에서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전통춤에 각자가 지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 작품을 풀어내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가 지닌 역사적 흐름 속에서 무대라는 곳은 경험이 발현되어 즉흥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춤의 색이 빚어지며, 자신의 기능적인 면 또한 발전되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자가 지닌 기질 및 살아온 환경으로부터 각각의 전통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지내온 삶과 의식을 반영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진솔한 무대를 전하려는 의미로 나타났다.

둘째, 중견무용수들은 무대 위 '현장인'으로서 다채로운 무대를 고사(考査)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중견무용수들은 하나의 전통춤을 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성 또한 고려하여 그 춤에 내포된 의미와 표현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 및 외부적 상황을 고려하고, 무대의 컨디션, 악사의 구성, 관객의 구성과 반응, 그리고 피드백 등 앞으로도 현장에서 다루고 싶어 하며, 전통춤의 요소들 가운데 특징적인 면이 강한 것들을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견무용수에게 있어 한국전통춤의 공연수행은 행보(行步)를 거듭하여 다양한 수용을 통해 진화(進化)하는 무대로 만들어 가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춤과 더불어 한국전통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수용을 바탕으로 보존과 보전을 함께 병행하며 공연을 수행하고 있었고, 시대 변화 흐름에 대해 춤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자신들 스스로 발전하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견 무용수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무대라는 곳을 통해 대중들에게 진솔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고, 공연 수행에 있어 기존 것을 계승하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다양한 수용으로부터 자신과 더불어 자신이 오르는 무대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시대와 나란히 마주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진화하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시대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을 수용하여 한국전통춤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되고, 이에 있어 중견무용수들의 한국전통춤 가치확장성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판단된다. 이로써 한국전통춤의 가치확장성을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견무용수들에 대한 실천성을 엿볼 수 있었고,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으로부터 중견무용수에 대한 경험 연구에 하나의 틀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연구는 중견무용수들의 한국전통춤 무대경험을 다룬 논문이기에 후속 연구에는 신진무용수들과 원로무용수들의 무대 경험, 그리고 중견무용수들의 다른 장르에 대한 무대 경험을 통해 보완되었으면 하며, 경험 연구는 수치화로 정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생애사, 현상학적 연구방법 등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참고문헌

고효영(2022). **한국전통춤 중견무용수의 무대 경험 내러티브 탐구**. 동덕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다희(2015). 직업무용수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 15**(1), 29-38.

김미숙(2015). 기혼 여성 무용가의 직업적 무용활동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무용연구, 33**(2), 77-80.

김민주, 노정식(2019). 무용전공자의 지도자 신뢰 형성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6**(4), 95-112.

김예진, 윤혜선(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경험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8**(2), 29-47.

김한범(2017).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노정식(2009).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관리, 공연불안 및 공연몰입의 관계**.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손원미, 전순희(2021). 무용을 전공한 요가 필라테스 강사의 직업적 활동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무용연구학회, 39**(4), 77-105.

송시윤(2019). 직업무용수의 성취목표 성향과 자기관리가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무용역사기록학, 55**, 161-178.

염지숙(2007).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교수경험에 대한 성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4**(2), 243-260.

염지숙(1999).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3), 57-82.

윤덕경(2010). 한국전통춤 전승과 보존에 관한 현황과 과제. **한국무용연구, 28**(2), 57-76.

이규승(2023.11.12.). 전 무용인의 대화합의 장, 제44회 서울무용제 개막 현장을 가다!. **OhmyStar오마이뉴스**.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977013

이도경(2012). **무용공연 전 심리적 불안이 무용공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진이(2016). **'체화된 인지' 개념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경험과 공감 연구**.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임선영, 이연수(2013). 전문무용수의 자기결정성동기가 심리적 중재요인 및 공연참여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0**(1), 69-89.

이윤경(2023). 직업무용수의 자기애적 성향이 공연자신감 및 성공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40**(3), 51-62.

이혁(2016). 지방 예술대학 무용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모색. 영남춤학회, 4(1), 55-72.

전미애(2017). 직업무용수들의 완벽주의성향과 무용열정 및 무용몰입의 구조적 관계. **한국무용연구, 35**(3), 355-377.

정석현(2021.11.17.). 미래의 전통을 만나는 자리, 국립무용단'홀춤Ⅱ'. **우리문화신문**. https://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32963

정승혜(2013). **무용수행시 정서표현의 억제 및 활성화 요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조정희(2005). **무용공연불안 원인과 대처행동에 관한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최은혜(2018). 직업무용수들의 자기관리행동과 무용수행능력성취감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6**(2), 679-688.

황희정(2014).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의 양립 가능성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46**, 37-53.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 Bass.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Stage Experience by Middle-aged Dancers†

Hyoyoung Koh* Dongduck University · **Youngsoo Yoo**** Jeonju Metropolitan Train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alue expandability of Korean traditional dance based on middle-aged dancers who are constantly innovating and develop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dance content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dance. Accordingly, five middle-aged danc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support project promoted by Seoul City, and a narr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facilitat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refore, the conclusions drawn are as follows. First, the stage was perceived as a free spac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mid-level dancer, and it was possible to analyze how each dancer told their own story in traditional Korean dance. Second, middle-aged dancers were able to analyze their own development by considering various stages as 'field experts' on stage. Third,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at for mid-level dancers, the performa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is a stage that evolves through various acceptances through repeated steps. As a result, middle-aged dancers were able to create an evolving stage by continuously trying to develop new content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current times.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the subjec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from the variability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s and circumstances, and in this regard, the potential for the expansion of the valu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by middle-aged dancers is endless. In the future, w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for experience-based research cases on middle-aged dancers, and it is also hoped tha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Key words : middle-aged dancers, Korean traditional dance, narrative inquiry, Value scalability, dance content

논문투고일: 2023.11.30
논문심사일: 2023.12.31
심사완료일: 2024.01.19

† This study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thesis for the 2022 doctoral thesis "Narrative study on Stage Experiences by Middle-aged Dancers in Korean Traditional Dance" at Department of Dance Convergence Contents, Dongduck Women's University

* Ph.D, Department of Dance Convergence Contents, Dongduck Women's University, hyobaby-55@hanmail.net
** Director, Jeonju Daesaseupcheong, puri97@hanmail.net.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